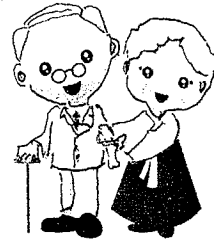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남편이라는 나무



언젠가부터 내 옆에 나무가 생겼습니다.
 그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리고 항상 내가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비록 내가 사랑하는 나무이기는 했지만 내 것을 포기 한다는게 이렇게 힘든 것 인줄 미처 몰랐습니다.
 언젠가부터 나는 그런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찮고 날 힘들게 하는 나무가 입기까지 했습니다.
 괴롭히기 시작했고 괜한 짜증과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덕을 많이 보고 있다고 느꼈기에 이 정도의 짜증과 심술은 충분히 참아낼 수 있고 또 참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무는 점점 병들었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태풍과 함께 찾아온 거센 비바람에 나무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어쩌면 나무의 고통스러움을 즐겼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나무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겼던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무를 보살피는 사이에,
 나무에게 짜증과 심술을 부리는 사이에,
 나무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늘'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쓰러진 나무를 일으켜 다시금 사랑해 줘야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임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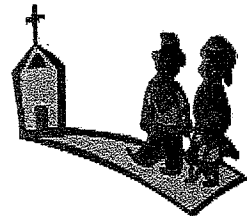


◀그땐 그랬지▶ 크리스마스 썸
 12월 방학을 앞둔 미술시간이면 으레히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색색이 물든 수수대로 모양을 붙였지만 미술에 재능이 약했던 내 것은 더 볼품이 없어 돈으로 산 카드로 대신하여 보냈습니다. 우표옆에는 언제나 크리스마스 썸도 함께 붙였습니다. 우표아래부분에 쓰여진 '결핵협회' 라는 글씨를 보며 결핵퇴치 기금으로 쓰인다는 뜻에 처음으로 Donation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누구나 착해지는 마음을 갖게했던 크리스마스 썸! 카드에 붙여 본적을 꼽아보니 꽤 오래 되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6권 52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5년 12월 18일
☎ 369-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어떤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요?

이근호 목사



- (1) 교회를 설편하지 않고 예수님만 설편하고, 교회를 믿지 말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설편하는 교회
- (2) 교회 부흥을 도모하지 않는 교회
- (3) 영적 주도권자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 목사가 아님을 분명히 해두는 교회
- (4) 돈 이야기 꺼집어 내지 않는 교회
- (5) 십자가의 보혈만이 사람을 의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설교가 있는 교회
- (6) 교회 주인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시기에, 전도를 하던, 헌금을 하던, 예배 참석을 하던, 교회 봉사를 무엇을 하던 모두 예수님께 일임하는 교회
- (7) 노회나 총회를 교회 위에 있는 기관으로 간주하지 않는 교회
- (8)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지, 결코 교회 활동(구제를 예산 중 몇 %를 했고, 선교사를 몇 명 보냈느니)를 자랑하지 않는 교회
- (9) 자발적으로 모이고, 자발적으로 봉사 하기를 원하는 교회
- (10) 이와같은 9가지에 비추어봐서 늘 부족함을 느끼며 회개하는 교회

◀말씀따라 행하기▶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강하게 세워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인품따라 행하기▶
 어머니의 한 마디는
 목사의 열 마디보다
 더 가치있다.

주 일 예 배

(* 표에 있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갈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50장	다 갈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55 (강림절 1)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98장	
기 도 Pray		이재영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3:1-17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크리스마스 준비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113장	다 갈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김석록, 김윤자 집사 가정)	다 갈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본당 뒷편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12월 예배위원◆

주일	기 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안내
27	박일영	백제성		장현중 이광희
4	이광희	변민강		
11	이규임	손영희		노은숙 정희자
18	이재영	신미숙	김석록, 김윤자	
25	장현중	양경배	박완배, 전미경	

◆12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4	구역예배(9):종강
11	믿음의어머니기도회(20)
18	성탄축하의밤(24)
25	성탄예배 세례식
31	송년주일 송구영신예배(31):11:30

2005년 교회생활	*3주간 예배, 찬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1. 성경 1독만 하기(하나님 사랑) 2. 전도하지말고 대신 친절하자(이웃 사랑) 3. 처음 만난 날 처럼(교우사랑)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일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오후 2시	

- 교우소식
*많은 교우들께서 한국방문중입니다. 강추위로 춥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건강히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일시: 20일(화)> <장소: 목양실>
- 2005년 유아세례 <일시> 25일(성탄절)> <대상>: 4세 어린이까지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자라는 자녀로 키우겠다는 부모님의 믿음이 아름다운 2005년 성탄절의 유아세례입니다.
*예배 후 유아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신청: 이태한 목사>
- "성탄축하의 밤" <24일 저녁 6시, Pump House (Manureve Ave. Takapuna)>
*벌써 이번 주말이 Christmas Eve입니다. 교우 모두 함께 즐거운 성탄절의 밤을 지내겠습니다.
*축하순서에 필요한 물품을 Donation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축하의 밤 리허설: 24일(토) 오후 4시
* Pump House를 정오 12시부터 각 부서연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동부 크리스마스 총연습 <일시: 22일(목) 오후 1시 교회>
*난로 주위에서 언 손 녹여가며 노래, 율동, 연극 연습을 하던 크리스마스 계절은 인생에서 행복한 날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동부 선물: 부모님들께서는 24일 성탄축하 공연 후 자녀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여 24일에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타클로즈에 의해 꿈같은 모습으로 전달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선물접수: 김경숙 집사&아동부 교사)
- 2006년도 교회자원봉사지원(자원봉사 지원서 참조)
*내년에도 함께 세워져 가는 갈보리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머리 빗

김성국

듣성해진 머리카락
아내가 빗 사다 주며
두드려 맛사지 하면
촉촉히 돌아 난다네요

마음에 품은
그리운 사람도
망들도록 가슴 쓸면
오롯이 찾아와
웃어줄까요?

그리운 사람
아주
그리운 날!

한 해 돌아볼 때 용기 없어 부끄러웠던 것, 깨닫지 못해 애달팠던 것, 실력이 늘지 못해 좌절했던 것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중 학생 때부터 써 보고 싶던 안경을 이제 때가 돼서 쓰려 하니 왠지 서글픔이 들어 주저해집니다. 거울 속에 행복하게 보이던 속머리도 세월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음을 말해 줍니다. 올 해에는 내 인생 살아가면서 가슴속에 그리움으로 남을 사람은 몇 명이 더해졌을까 돌아봅니다.